



2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카타르 2023 E조 조별리그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난 뒤 손흥민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비가 비수’ 한국, 16강 조기 확정 무산

클린스만호,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

선제골 넣고도 자책골에 역전 허용...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 2-2

요르단에 골득실 뒤져 2위... 25일 말레이시아전 후 16강 판가름



한국의 아시안컵 16강 조기 확정기 무산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지난 20일 카타르 도하의 알수마마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요르단과의 대회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9분 손흥민(토트넘)이 페널티킥으로 팀의 선제골이자 이번 대회 첫 골을 기록했지만, 한국은 전반 37분 나온 박용우(알아인)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했고 전반 추가 시간 역전골까지 내줬다. 후반전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긴 한국은 후반

추가 시간 나온 황인범(즈베즈다)의 슈팅이 상대 맞고 들어가면서 패배를 모면했다.

전반 8분 황인범이 밀어준 공을 받은 손흥민이 문전 경합 과정에서 상대 반칙으로 넘어졌다. 이어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선 손흥민이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전반 20분 요르단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의 빠른 슈팅이 한국 골대로 향했고, 골키퍼 조현우(울산)가 좋은 수비로 이를 막으면서 실점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후반 37분 한국 골대가 열렸다. 요르단의 코너킥 상황, 왼쪽에서 띄운 크로스가 중앙을 지나 오른쪽으로 향했다. 알아람이 왼발 슈

팅을 하기 전 박용우가 공을 차단하기 위해 몸을 날렸지만 머리 맞은 공이 그대로 골대로 들어갔다.

1-1 원점으로 돌아간 승부. 전반 40분 역습에 나선던 조규성(미트윌란)이 페널티박스를 앞에 두고 상대 발에 걸려 넘어졌다.

한국이 좋은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발을 차려 공이 수비벽을 지나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다.

전반 종료 직전 알타마리가 중원에서 공을 넘겨 받은 뒤 한국진영으로 빠르게 진입했다. 김민재(빈헨)가 몸싸움을 하면서 골대 앞에서 알타마리를 저지했다. 그러나 이어진 공격은 막지 못했다.

전반 추가 시간 6분 오른쪽에서 알타마리가 패인

공이 정승현(울산) 맞고 흘렀고, 뒤에서 달려든 알 나이마트가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8분의 추가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기제(수원)가 매서운 슈팅을 선보였지만 공은 골키퍼 야지드 아 부라일라에게 막혔다. 조규성이 흐른 공을 잡아 오른발로 터치했지만 바운드 된 공이 높게 튀어 골대를 지나치면서, 한국은 1-2로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전 한국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요르단 골대를 거세게 두드렸다.

후반 14분 손흥민의 슈팅이 상대 맞고 흘렀고, 후반 21분에는 이강인(생제르맹)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왔지만 골키퍼 아부라일라의 편칭에 막혔다.

후반 30분에는 설영우(울산)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공격이 전개되기 전에 상대 골키퍼가 뛰어올라 공을 낚아챘다. 후반 36분 이강인의 슈팅도 아부라일라를 넘지 못했다.

후반 45분이다 지나가고 11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추가 시간 시작과 함께 한국이 기다렸던 골

을 만들었다.

오른쪽에서 공을 살린 김태환(전북)이 반대편으로 공을 보냈고, 문전에 있던 오현규(셀틱)의 머리 맞은 공이 왼쪽에 있던 손흥민 앞으로 향했다. 손흥민의 컷백으로 황인범이 슈팅 기회를 잡았다. 황인범의 왼발을 떠난 공이 문전에 있던 야잔 알아람 맞고 요르단 골대 안으로 향했다.

극적으로 2-2 무승부를 만든 한국은 마지막까지 공세를 펼쳤지만 역전까지 이르지 못하고 무승부로 2차전을 마무리했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과 요르단이 모두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하게 됐지만 골득실에서 요르단이 앞서 1위를 유지했다.

요르단은 앞선 말레이시아전에서 4-0 대승을 거뒀고 한국은 바레인에 3-1, 2골 차로 이겼다.

한국은 25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E조 3차전을 갖고 16강행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외국인 원투펀치’ 완성...우완 네일 영입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포함  
볼넷 허용 적고 153km 강속구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도 좋지 못했다. 지난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뛴 4명의 외국인 투수가 만든 승수는 16승에 불과했고, 이들은 283이닝을 책임지는 데 그쳤다.

외국인 선수에게 우선 기대하는 이닝부터 부족했고, 강렬함도 떨어지면서 KIA는 순위 싸움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 투수의 부진은 토종 선발진에도 영향을 미쳤고, 선발진이 위기의 순간들을 보내면서 불펜 부담도 가중됐다.

결국 확실한 외국인 투수가 마운드 중심을 잡아 주지 못하면서 KIA는 젊은 마운드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만큼 KIA의 2024시즌 외국인 투수 구성은 큰 관심사가 됐다. 일단 영입 결과는 좋은 점수를 받는 다.

KIA는 제임스 네일에 앞서 2021시즌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데 메이저리그 통산 94경기에 출전한 윌 크로우를 영입했다. 이어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제임스 네일과의 계약도 성사시켰다.

193cm·83kg의 체격을 갖춘 제임스 네일은 제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커리어 내내 볼넷 허용이

적었고,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평균 149km·최고 153km의 스피드를 기록했다.

위력적인 커브를 보유한 그는 싱커의 움직임도 좋아 땅볼 유도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제임스 네일은 지난 시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으로 10경기에 출전하는 등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을 보내면서 17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1홀드 평균자책점 7.40의 성적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155경기(선발 35경기)에 등판해 27승 17패 3세이브 20홀드 평균자책점 4.15의 성적을 기록했다.

KIA는 빅리그 경험과 150km이상의 강속구를 보유한 ‘외국인 원투 펀치’로 2024시즌 반전을 노리게 됐다.

배터랑 양현종을 중심으로 신에 이의리와 윤영철 등 ‘토종 좌완 트리오’에 우완 외인 듀오가 어우러지면서 지난 시즌보다 한층 탄탄해진 마운드를 보여줄 수 있다.

새 외국인 투수 또 정재훈, 이동걸 세 투수 코치로 분위기를 바꾼 KIA는 젊은 투수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정해영·이의라·윤영철·황동하·곽도규 등 마운드 핵심 선수들을 미국 시애틀 드라이브라인 베이스볼 센터에 파견했고, 김현수·홍원빈·김기훈·유승철은 캔버라 캐벌리 소속으로 호주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더하도록 했다.

KIA가 경력과 경험으로 마운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2024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옐로카드 적색경보

한국 ‘카드 세탁’ 실패...손흥민 등 7명 ‘부담’  
말레이시아전 경고 누적 편 16강 땔 수 없어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경고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앞두고 ‘옐로카드 적색경보’에 직면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20일 카타르 도하의 알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2-2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요르단과 나란히 1승 1무(승점 4)를 기록했지만 득실 차에서 밀려 조 2위에 랭크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요르단(87위)을 상대로 선제골을 뽑고도 동점골과 역전골을 내주며 고전하다가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상대 자책골 덕에 겨우 무승부를 거뒀다.

애초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3승 2무로 크게 앞서는 터라 낙승을 예상했고, 이를 통해 바레인과의 1차전에서 얻었던 5장의 ‘무더기 옐로카드’를 효과적으로 소진할 생각이었다.

클린스만호는 바레인전에서 박용우(알아인), 김민재(빈헨), 이기제(수원), 조규성(미트윌란), 손흥민(토트넘) 등 주요 선수 5명이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요르단전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 점수 차를 벌이고서 이들이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오는 25일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 결장하고 16강전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하는 ‘카드 세탁’ 작전을 펼칠 공산이 었다.

특히 요르단을 꺾으면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만큼 ‘E조 최약체’ 말레이시아전은 대표팀이 카드 부담도 덜고 주요 선수들의 체력까지 아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표팀의 기대는 요르단의 강한 저항에 꺾이고 말았다.

전반 9분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앞서 갔지만,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하며 끌려갔고, 여유로운 선수 운영 대신 후반 추가시간까지 총력전을 펼칠 끝에 어렵사리 2-2 무승부를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요르단전에서는 오현규(셀틱)와 황인범(즈베즈다)마저 옐로카드를 받아 말레이시아와 최종전을 앞두고 7명의 선수가 ‘경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들 7명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옐로카드를 또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16강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클린스만호는 당장 말레이시아전 경고 상황에 따라 핵심 선수가 16강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경고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연합뉴스